**환단고기 따라 읽기** (서문)

“홍익인간의 한얼정신은 단군이래로 이어온 한국인의 정신적 유전자이자 내 자존의 얼이다.”

1.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의 한계를 안다는 것이다. 앎의 한계를 모르고 무엇인가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앎과 모름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해도 많은 경우 앎과 모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름도 알고 앎도 모른다는 식으로 뒤죽박죽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소크라테스처럼 안다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 태도가 **진짜 아는 자의 자기 고백일**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견해를 가졌다는 걸 확신하는 것일 뿐이다. 그 확신이 때로는 편견의 덩어리일지라도 인간은 그러한 견해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간다. 보편타당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스스로 세뇌되어 지식인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결국 진리라는 것도 인간의 사유로 만들어 낸 상일 뿐이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며,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인간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의견의 상**일 뿐이다.

환단고기에는 엄청난 우주 이야기가 담겨있다. 지구의 시원문명에 대한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시원은 어디서부터일까? 그보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려운 철학적 표현으로 우주 자연의 궁극의 상, 시원의 상은 무엇일까? 역사서로 보여지는 환단고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철학적이다. 과연 6,000년 전 석기시대에 인간이 이런 숭고한 경지에서 우주 자연을 통찰할 수 있었을까?

현대과학의 표준이론으로 자리잡은 빅 뱅 이론으로 **물리세계의 시원**을 주장한다면 세계는 물질로 시작되어 물질적인 것의 진화로 이루어져 왔다. 가만 생각해보면 세계는 그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생명에 대한 진화론이 나왔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단순한 물리 화학적 변화의 상만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진화의 상을 개입**시킨 것이다. 그러면 자연 경험의 도처에 있는 생명의 상은 어떠한가? 인간 심리의 상, 정신의 상, 영혼의 상은 어떠한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하느님이 창조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모든 회의가 덮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비주의로 치장하여 모든 앎과 모름의 경계를 희석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장자의 앎에 대한 탁트인 경지, 칸트의 겸손한 순수이성 비판, 화이트헤드의 앎과 모름에 대한 통찰력 등으로 인류의 지적 한계는 확장되어왔다. 그런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환단고기에 일관된 **삼신사상과 성통광명의 메세지**는 현대인들에게 겨우 삼신할미의 샤머니즘 수준으로 비판되는 실정이다.

우주의 시작은 물질이다. 우주의 시작은 정신이다. 이런 주장으로 유물론적 세계관과 유심론적 세계관이 갈린다. 소립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의 극치에 달하면 우주의 시작은 에너지다. 아니 에너지보다 정보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다. 양자역학은 **물질이란** 엄청 빠르게 움직이며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 소립자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설명한다. 변화 무쌍한 에너지의 질서정연한 모양을 보고 어떤 정보적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이 물리학이다. 그렇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누가 그러한 정보를 우주 자연에 심어놓은 걸까? 다시 하느님, 신적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환단고기에서는 삼신 신앙과 천손족의 전설을 통해 인류 문명의 시원을 이렇게 풀어놓았다.

하늘에서 세상을 주재하는 환인이라는 신의 아들 환웅이 지상세계를 다스릴 뜻을 품었다. 그래서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배달 신시를 열어 동북아시아에 인류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 환웅 신이 웅녀족의 부인을 맞아 단군을 낳았으니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단군왕검은 바로 **반신반인**의 존재이기도 하다. 환인, 환웅, 단군 세 분 국조는 훗날 삼신으로 추앙되어 천제를 드리는 대상이 된다. 서양 문화의 유산인 유심론, 유물론 또는 창조론 등과는 너무도 다른 사고 양식을 보여주는 삼신사상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동아시아의 기초철학인 기 조화의 세계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훗날 유학과 노장사상과 도교에 공통된 기화 세계관으로 발전해가는 삼신사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주 자연의 맑은 기가 한 번 뭉쳐져 인간의 삶을 살다가, 정신 혼백의 힘이 다하여 기가 흩어지면 천지자연으로 돌아간다. 천당과 지옥이 갈리는 절대자 하느님의 심판에 연연할 필요도, 유물론적인 무신론의 미망에 빠져 내세를 비관할 필요도 없다. 물론 지나친 불교적 윤회관이나 유심론적 유아주의도 한얼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품수받은 성품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수양을 더함으로써 **한세상 홍익 상생의 한얼로 더불어 살다**가 갈 뿐이다.”

2.

환단고기를 쉬운 영어로 번역해나가는 작업 중이다.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작업이다. 위서라고 하고, 역사서라고 하고, 또 현대인들이 믿기 어려운 신화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않는 철학이 도처에 뒤덮여 있는 책이다. 언어의 번역을 떠나 문화의 번역이고 **동아시아 철학의 번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영어권에는 환단고기에서와 같은 철학과 신화가 없다. 쉽게 말해 하느님이 지상에 내려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판타지가 미국 포함한 서구 문명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대로 **과학으로는 유물론이 진리이고, 상식으로는 진화론이 대세이며, 종교적으로는 유신론**이 먹혀들어가는 것이 21세기 문명의 현주소다.

환단고기 <단군세기> 편에는 삼신상제의 존재를 상정하고 인간이 순수한 정성으로 다져진 일심을 가져야 그 상제님을 뵐 수 있다고 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과 함께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줄곧 하늘을 받드는 천제를 지내왔다. 이는 고조선이나, 북부여나, 고구려나, 기타 한국사에 등장하는 어느 왕조에도 예외가 없다. **경천애인**의 사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제사의례**는 이렇게 뿌리깊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조선, 고구려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단군 신앙과 19세기 근세의 동학 사상은 일관하는 점이 있으니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짧은 선언적 요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서구 문명의 어느 부분과 통할 수 있을까? 환단고기로 대변되는 한얼 사상에는 왜 꼭 이런 하늘과 사람, 시원과 궁극의 문제를 담고 있을까? 여기서 환단고기의 철학적이며 신학적 내용이 한얼 사상과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명이 필요하다. 앞서 제기한 유심론, 유물론 또는 창조론 등과는 너무도 다른 사고 양식을 보여주는 **삼신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삼신 사상은 환단고기 역사 서술 전편에 바탕으로 깔려 있다. 나아가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등으로 집약적으로 응축되어 제시되어 있다.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꿈**은 한얼 정신으로 국가를 경영한 우리 조상들의 현실이었다. 인간의 진화로 문명을 이루었다고 보는 일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다. 어찌 인간의 시발점에서 부터 저리 숭고한 정신이 싹틀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상식인들은 단군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는 것이다. 단군 이야기를 과연 황당무계한 옛날 이야기로만 여길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고민을 토로한 것이다.

환단고기 전편을 통한 삼신 사상의 강조는 인간의 성품과 국가의 통치가 온전해지려면 바로 인성의 지극한 계발과 삼신의 오묘한 조화에 대한 신앙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기원 전 2,182년3세 단군 가륵이 삼랑 을보륵을 불러 ‘신과 왕과 종과 전의 도’를 하문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신학적인 삼신 사상과 함께 **철학적인 성명정의 이론**이 환단고기 도처에 적혀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그 시원에서 부터 매우 격조높은 철학으로 인간을 교화하고 세상을 경영하였다는 증거다.

기원 전 1,891년 단군 도해 시절에 쓰여진 ‘염표문’은 한민족 반 만년 역사에 일종의 국민교육헌장 역할을 해왔다. 염표문의 핵심내용인 ‘**일신강충 성통공완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이념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도 환단고기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시를 베풀고 개천의 도를 연 것은 결국 천상의 삼신 상제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나를 비워 만물을 잘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 이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전계의 계율을 말하고, 현묘한 신교의 도를 깨쳐 광명 사상으로 세상을 건지는 ‘거발환의 정신’을 강조한다. 인류의 시원문명으로 손색없는 **홍익인간의 휴머니즘과 재세이화의 신본주의를 겸비**한 위대한 철학이 아닐 수 없다.

고대로부터 우리 고유의 선도사상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신선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일신강충 성통광명’의 비결이 담겨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환인 천제가 환웅을 지상에 내려보내** 신시배달 국가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개개인의 선도 수행을 통해 배달 민족의 얼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시원에서부터 한민족은 개개인의 성통공완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삼일신고>에는 인간이 삼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어 천지인 삼재를 통하여 가장 우수한 존재이며, 성명정과 신심기를 갖추어 감식촉을 할 수 있어서 선도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역시 사람이 삼신일체의 기운을 받을 때 성명정으로 나누어 받아, 덕과 지혜와 수행 실천으로 심신기의 조화를 성취하고, 감식촉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가 ‘재세이화 홍익인간’ 정신에 투철한 선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때의 선도는 중국의 노자 이래의 도교적 선도가 아니라 그보다 수 천년 앞선 동이족 발귀리, 자부선인, 유위자의 선도를 말한다. 고구려의 조의선인 역시 선도 수행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의 삼신사상과 선도문화는 고려 때까지도 전승되어서 환단고기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혀있다.

“우주에 삼신이 영원히 존재하고, 인물에 삼진이 불멸하는 것은 마땅히 하늘 아래 영원한 **대정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생성과 변화가 무궁**하기 때문이다. 도가 하늘에 있으면 삼신이 되고, 도가 사람에게 있으면 삼진이 된다. 그 근본을 말하면 오직 하나일 뿐이다. 오직 하나인 것이 도요, 둘이 아닌 것이 법이다.”

3.

지난 6개월간 한얼 연구소 연구위원들과 환단고기를 한줄 한줄 읽어내려갔다. 군데 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토론해가며 환단고기를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책은 위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위원들이 선정한 몇 몇 주제를 부각시켜 **환단고기를 쉽게 읽기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맡고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독자들도 우리 한얼 연구소 연구위원들의 환단고기 독서 과정에 동참하여 처음에는 도대체 말도 안되는 황당한 옛날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어떻게 나름대로 소화해 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환단고기의 내용을 얼마나 진실로 보느냐에 대한 한얼연구소의 입장을 서문을 통해 밝혔으면 한다. 한얼 연구소 박준환 이사장님은 환단고기에 쓰여진 우리 고대사를 반 쯤은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고 하셨다. 이 글의 서두에서부터 한얼연구소 소장으로서의 나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생각하며 다시 환단고기 위서 문제를 재론해 본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사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어떤 안목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느냐하는 **역사관의 기준점** 찾기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학계는 환단고기를 20세기에 쓰여진 위서라고 단정한다. 이는 물론 중국 및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나아가 미국 역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작년 11월 환단고기 역사 분 1차 번역을 마치고 하바드 대학의 마크 바잉턴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감수 문제를 의뢰했을 때 그는 즉각 ‘환단고기는 위서이므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대답해 왔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서로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 주류 역사학계에서 **어떤 논리로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단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많은 연구도 있지만 일단은 환단고기 위작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다.

1911년 계연수에 의해 첫 출판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호하다. 다만 계연수가 환단고기를 조작해낸 의도는 “한국이 고대부터 중국을 압도하는 천자국이며 문명국이었다”는 **국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국권을 잃은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민족주의 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지 불과 1년 만인 1911년에 쓰여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렇듯 주류 역사계에서는 중국 동북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대한 영토의 환국과 배달국, 고조선의 기록 등은 근거가 없고 과장된 역사로 판단하며,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평생을 고조선 연구에 바친 윤내현 교수는 『고조선연구』(만권당 발행)에서 다음과 같이 고조선 영토에 대해 진실한 양심고백을 한다. 물론 한사군 평양설을 주장하는 바잉턴 교수는 윤내현의 학설조차도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았다.

“고조선을 바르게 복원하고 보면 만주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한국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고조선은 한반도와 만주 전 지역을 그 통치영역으로 하고 있었던 국가였고 고조선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부여·고구려·읍루·동옥저·동예·최씨 낙랑국·한(韓) 등은 모두가 고조선의 거수국(渠帥國)이었던 세력들이 독립하여 세운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혹시 필자가 한국사의 영역을 만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도에 맞추어 고조선을 재구성하였을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문연구는 진실 되어야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앞에서 한 말로써 대답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만약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조선을 재구성했다면 그것은 역사왜곡으로서, 역사학자로서 큰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윤내현의 『고조선연구』 상권 20쪽)

아메리카 인디언 수 천만명이 살고있던 대륙을 콜럼부스가 처음 발견한 신대륙이라고 배웠다. 유럽 변방의 어느 족속들에게는 새로운 신천지로 보였을 수 있다. 인디언이라는 명칭조차도 동양의 인도를 찾았다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도사람으로 오인하여 붙인 것이다. 1592년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만 년 가까이 살아온 역사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상식에 속한다. 불과 400여년 전에 이민사를 개척한 서구인들에게 이러한 상식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한족이 대세를 이루는 중국 역사에는 고대 이래 동북 지역을 야만적인 동이 오랑캐들이 거주하는 변방으로만 취급하였다. 안중에도 없었던 동북지역의 홍산문명을 이제와서 중국 한족의 문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대 중국인의 상식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 만약 동북지역의 동이족들이 한족과 인종이 전혀 달랐다면 현재의 영토 점유를 기준으로 모든 변경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삼아버리는 동북공정같은 역사왜곡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신대륙 발견이라 우겨도 거기에는 엄연히 수 천년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의 흔적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지 채 500년도 안된 서구인들이 비슷한 얼굴 색을 한 인종이었으면 우겨서라도 인디언의 역사를 빼앗았으리라 짐작이 된다.

4.

역사의식은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다. 하지만 객관성이란 결국 당대의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사대사관이나 식민사관 같은 과거 부정의 퇴영적인 **마이너스 역사관**을 현실 긍정의 **플러스 역사관**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 타자의 시선으로 쓰여진 마이너스 역사관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술하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플러스 역사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인의 역사의식은 객관성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한영우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흔히 양대 진영으로 대립되는 보수와 진보는 다같이 균형감각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서구적 가치에 기울어져 있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서양의 가치보다 더 높은 평화의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수천 년간 살아온 조상들의 역사적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서술을 주체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영우 교수는 한국인의 가치를 조선시대 선비정신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가 보는 선비정신의 핵심은 단순히 공자나 맹자, 주자로 이어지는 유교의 정신에 그치지 않고 고조선 고구려 시대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사상이다. 우주와 사람이 하나의 생명공동체이고, 사람과 사람이 홍익인간으로 또 **하나의 생명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생명공동체 사상은 우리 고유의 삼신사상에서 발원된 것**이다. 그 가치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재적 발전을 해 왔으며, 미래 언젠가는 홍익인간의 생명공동체 사상을 세계인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경제나 군사강국으로 세계사를 주도한 일이 없다. 주변 강대국의압박과 영향을 크게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세계 문화강국의 하나로 살아왔다. 영토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사는 매우 왜소하지만, 문화가치로 본다면 한국사는 크나큰 세계사와 맞닿아 있다. 한때 일본과 중국, 동남아 지역까지 퍼져간 한류의 뿌리도 한국인의 핵심 문화가치에 닿아있다. 이 핵심 문화가치에는 **홍익과 상생의 한얼 정신**이 담겨있다.

한영우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서문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핵심 가치가 문화적 영향으로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꽃피웠는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인의 조상인 **‘아사달 족’의 문화**가 중국문화의 뿌리가 되었고, 아사달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공자가 고조선을 ‘군자국’이라 칭하면서 건너오고 싶다고 했고, 그 뒤에도’동방 예의지국’이라 불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문화를 다시 수용하여 문화를 살찌웠지만, ‘군자국’과 ‘동방 예의지국’의 이미지만은 한국이 더높았다. 그래서 동아시아문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환단고기를 통해 우리 고대사와 민족 문화를 공부해온 한얼 연구소의 입장에서 덧붙여 말하자면 공자가 바라본 고조선은 군자국이었지만, 노자를 비롯한 도가들이 은밀히 전수받은 고조선의 문화는 바로 **신선의 나라 고조선에서 꽃핀 선도문화**였다. 그들이 바라본 고조선은 해마다 드리는 천제를 통해 하늘과 통하는 신선국이었으리라. 도가의 선도적 입장에서 쓴 북애자의 ‘규원사화’ (1675)의 단군기는 유교 사대주의 역사관을 **단군중심의 역사인식으로 재해석하는 데 선도와 삼신신앙**을 내세우고 있다. 한영우는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이라는 논문에서 북애의 규원사화를 다루고 있다. 북애는 규원사화를 통하여 한마디로 한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이족이 오늘날 중국인의 조상인 화하족을 압도하던 시대**를 그려내고 있다.

5.

이 책은 한국 사회학계에서 ‘주역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고, 남가주 불교대학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범 법사와, 평생을 수도인으로서 지내며 지난 20여년 남가주 지역에서 수많은 수련생을 지도한 김창옥 국선도 사범과, 율곡 철학 전공자로서 잠시 한국 동양철학계에 몸담았다가 미국에 와서 한의학계에 종사하면서 한얼 연구소와 인연이 닿은 본인이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문단은 김재범 박사 논문 요약 글이다.

“조화, 교화, 치화의 작용을 하는 삼신은 일체요, 집일삼함, 회삼귀일이라는 『환단고기』에 나타난 삼신 사상은 우주만물의 근본원리로부터, 우리 민족의 개국이념과 정치 철학,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모든 원리와 규율을 관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로고스(logos; 이성, 논리)이자 파토스(pathos; 감성, 정념)이며, 에토스(ethos; 인격, 신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삼신 사상은 우주만물의 시원을 밝히고 지혜의 광명으로 인간들끼리는 물론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특수성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옥 사범이 집필한 ‘전쟁사를 통해 본 환단고기 역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전쟁으로 살펴본 단군세기는, 전쟁은 한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싸움이니 그 민족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사건이고 전쟁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활동 규모와 민족의 능력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됨으로 고조선 국가의 규모를 파악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환단고기의 재발견과 더불어 우리 고대사의 전체적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대조선은 중국의 진제국과 한제국이 형성되기 전에는 항상 중국보다 우위에 있었던 선진문명국이라는 것이 확인 가능했다. 이 것이 이번 작업의 성과물일 것이다."

사이먼 김 소장이 집필한 ‘고조선의 선도 문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원조 ‘신선의 나라’다. 이는 다음 세 가지로 증명된다. 첫째 삼신산의 소재지가 한국인의 발상지와 동일한 곳이다. 둘째 삼신 사상의 원형을 수 천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다. 셋째 삼신사상은 제천의식과 산악숭배 관념 등으로 볼때 샤머니즘과 친연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선도문화와도 친연성을 지닌다. (정재서 1994, 불사의 신화와 사상, 69쪽)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mythology) 환단고기에 나타난 삼신사상을 근거로 한국은 신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삼신산의 소재지, 삼신 사상의 원형은 단군세기 등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이다.”

한편 환단고기에 서술된 단군조선의 역사관은 뚜렷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단군조선은 훗날 중국으로 통합되는 중원지역을 압도하고, 동북 만주지역의 진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일부의 마한, 중국 동부 산동, 하북 지역인 번한의 삼한을 장악하였으며 훗날 요, 금, 원, 청 나라의 골간을 이루는 **소동이 부족의 정체성의 원조**가 되는 구이족을 통치한 시조국가이다.”

1897년 고종 황제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칭한 역사적 근거가 바로 위의 진한, 마한, 번한의 삼한이다. 한반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 있었던 삼한을 역사적 근거지로 했다면 당연히 **소한민국**이라고 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주류학계는 실제 역사의 진위 판단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환단고기에 나타난 동이 조선족에 의한 중국 한족 압도의 역사관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찌 감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이 중국을 군사 외교적으로 대등하게 대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훗날 사대사관이라고 지칭되는 자기 비하의 역사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압도하였다는 기록은 말도 않된다. 하지만 환단고기에 기록되어있는 이러한 스토리 텔링이 그저 황당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한국 역사의 시원인 단군조선이 고유의 선도문화로 역사적 정체성을 이어왔다고 본다면, 반드시 **삼신사상의 원형을 추적하여 신선의 나라 고조선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책에 수록된 여섯 편의 논문 형식의 글들이 의도하는 바는 환단고기에 수록된 신화적, 설화적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현장감 있게 재조명해보는 일이다.

6.

한얼연구소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18차, 19차 학술대회를 통해 동북아 고대사를 역사적 진실대로 바로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조선 역사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고조선의 실체를 발해연안 문명으로 명명한 고고학자 이형구의 연구와 중국의 정사 전체를 수록한 사고전서를 통해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한 심백강의 주제 발표를 푯대로 삼았다. 물론 김용운 선생이 제시한 ‘원형사관과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도 동아시아 전체 맥락에서 우리 한민족 역사를 조망하는 좋은 계기였다.

이 책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왜 이러한 고단한 작업이 필요하였나를 일별해서 정리하면서 서문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의 조선 건국을 신화로만 볼 이유가 없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는 단군건국을 설화나 신화로 윤색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홍산문명의 발견으로 고조선의 발상지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근거는 확실해졌다. 단군조선의 건국과 같은 바로 그 연대에, 그 장소에 국가라는 형태로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고조선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일제 시대 조선사 편수회에 의해 주장된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설은 일종의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사서의 기록에 기원 전 7세기에나 발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관자에 언급되어있다) 고조선의 시발점을 그 때로 잡는 학자들도 있다. 심지어 위만 조선이 망하기 100년 전, 즉 기원전 3세기에나 국가 형태의 고조선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사학자들도 있다.

도대체 어떤 나라 이름이 알려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건국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적어도 수백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올라가 처음 나라가 생겼을 거라는 추리는 왜 못하는가? 무조건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낮추어 잡아놓고 단군왕검의 건국 연대는 신화라고 못 박는 학자들의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논리로 지난 천 수백년 중국을 대국으로 여겨 조공이라는 국제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그 이전 몇 천년도 중국 지역에 명멸한 나라들에게 압도당해 변경의 약소국으로 지냈다고 단언하는 발상은 억지에 가깝다.

그래서 일단 한얼연구소의 환단고기 공부를 통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의 기본은 이러하다. 불과 수십년에서 200-300년만에 사라져갔던 중원의 왕조들에 비해서700년을 단일 정치체제로 이어오며 알렉산더 대왕 못지않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광개토대왕, 수나라 당나라와 각축하며 대등하게 맞서 싸웠던 고구려의 영화를 복원하며 우리 **고대사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고조선 문명권의 실체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조선과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새로운 시각틀을 가지고 한중일의 정체성 시작 이전의 고대사를 들여다 보자.

부사년의 ‘이하동서설’, 서량지의 ‘동이 연구’, 엄문명의 ‘중국 문명 기원’ 등의 학설에 주목하자. 소병기의 홍산문명과 황하문명 교류의 Y벨트 이론의 타당성도 검토해보자. **홍산문화 유적지**의 발굴로 요하문명의 윤곽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과연 **하가점 하층문화와 같은 시기, 비슷한 장소**에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는가를 추론해보자. 이 때 고조선, 동이, 단군은 핵심 키워드가 된다. 단군신화라고 하지 않고 **단군사화**라고 표현하는 윤내현의 학자적 안목이 돋보인다. 우리 스스로 한민족의 뿌리를 신화로 모호하게 흐리지 말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내자. 역사로서의 고조선의 실체를 배제하고는 한민족 문화의 원형, 민족 정체성의 시원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홍산문명의 주인공이 고조선 건국의 실세들이었나?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우하량 적석총, 옥기, 웅녀상, 빗살무늬 토기 등 고고학적 유물이 이러한 사실을 추론하게 만든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였다. 마크 바잉턴에게 지적받은 바대로 비전문가로서의 성급한 결론같은 데 집착하지 말자. 환단고기에 쓰여진 고대사가 거짓이면 어떻고 진실이면 어떤가? 단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인식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홍산 문명 발굴로 인한 숱한 동아시아 고대 역사 인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자.

2017년 3월에 개최되는 제 20차 한얼 학술대회의 주제로 **‘고조선 문명이 동아시아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난 수 십년간의 고고학적, 문헌학적, 역사학적 연구 성과를 망라해서 ‘환단고기’에 엄청난 상상력으로 쓰여진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정당하게 평가하려 노력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 초창기에 나오는 내용은 한국이나 중국이라는 역사 주체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기 이전의 이야기로서 끊임없이 싸우고 정복하고 이주하고 동화되고 이질화되는 수천년의 역사 과정을 보여준다.

‘환단고기’에는 역사 이야기 이전에 설화도 있고 신화도 담겨있다. 동북아 역사를 우리의 시선에서 고조선 중심으로 재해석했을 때 ‘환단고기’ 이야기는 생생한 역사로 살아날 수 있다. 이 때 적어도 두 가지 사실만은 신화가 아닌 역사로서 각인되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자. 그 첫째는 단군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들이며, 삼신으로 신화화 되어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초기 단군 이래의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한얼의 정치관**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둘째는 고조선은 기원 전 7세기가 아닌 기원 전 24세기에 건국되었다. **기원 후 2,000년** 동안 고조선을 터전으로 발전해나간 동이족의 후예들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였듯이, **기원 전 2,000년** 역사의 대부분도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 고조선이 중국 왕조들을 압도했던 것이 동아시아 역사다.

매주 한얼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준 김재범 법사와 김창옥 사범, 환단고기 초벌 번역에 참여해준 김도현 씨, 영역본을 함께 읽어준 케이트 박 씨, 그리고 한얼 연구소 이사진들, 특히 홍보이사 제인 리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박준환 한얼연구소 이사장님의 통큰 후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환단고기 영문 번역이라는 어려운 사업도 박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완성되었다. 환단고기 영문판이 출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국인 2세, 3세 들에게 우리 단군 역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되는 최초의 순간이 있다. 2세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갈 우리 한국인의 원형 정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초의 기억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이 어떤 음식인가를 맛있게 먹었다거나, 엄마 등에 업혀서 느꼈던 아늑함 같은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갑자기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울던 기억이나, 엄마 젖을 너무 힘껏 빨다 아파서 놀란 엄마에게 맞던 불쾌한 기억일 수도 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그러하다면, 어느 민족에게도 그러한 기억의 원형이 있을까? 우리는 왜 시원을 찾으려하는가? 빅 뱅 이래 138억년 물질 우주 한울이 있다. 수 십억년 동안 원소와 빛과 에너지로 인해 형성된 하늘과 땅, 천지가 있다. 그리고 수 십만 년 고등한 생명으로 진화해온 나의 몸이 살아있다. 그리고 천지만물의 온 존재는 이 순간의 내 정신 한얼과 이어져 있다.

이러한 소개 글이 **우리 조상의 역사**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인만의 고유 사상**이라고도 하고, **우주 만유의 진리를 담고 인류를 구원할 빛**이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원하며 이만 줄인다.

“If you understand everything, you must be misinformed.”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를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만 알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가 얼음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은 여름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한쪽만 알고 다른 쪽을 모르는 사람과 도(道)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에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을유년 경칩 지나

한얼연구소 연구실에서 인산 김철호 시몬 (Simon Kim)